

세계의 경계가 어그러지며, 주인공 요릭스는 어느 날 이세계로 떨어진다. 깜깜하고 신비로운 숲에서 눈을 뜬 요릭스는 곧바로 현실의 법칙과 다른 세상에 당황했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소녀 루나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간다. 루나는 요릭스에게 이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그의 여행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준다.

요릭스와 루나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루나는 유쾌하고 따뜻했으며, 이세계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홀로 탐험을 즐기던 용감한 모험가였으며, 요릭스를 도우며 함께 이세계의 신비를 탐험하기로 결심한다.

루나는 어느 날 요릭스와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고요한 달빛 아래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어릴 때, 내 고향은 전쟁에 휩쓸렸어. 부모님은 내가 여덟 살이 되기 전에 전사하셨고... 남은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은 황폐해졌고, 혼자가 된 나는 다른 마을을 전전하며 살아남아야 했어."

루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어깨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과 슬픔이 얹혀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세상에서 더 나은 곳,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루나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두려웠어. 언제든 그들이 떠날 수도 있고, 다시 혼자가 될까 봐... 그래서 항상 혼자 모험을 다녔지.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들었거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요릭스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자, 그녀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요릭스, 너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 어쩌면 혼자 싸우지 않아도 괜찮은 건 아닐까? 너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이곳에서, 너와 함께라면, 어쩌면 진짜 '내 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요릭스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루나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세계에 떨어진 자신의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여행이 계속되면서 요릭스는 여러 명의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마법사 루이스, 사격에 능한 모험가 리나, 그리고 전설의 검을 다루는 기사 크리스 등이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에 모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함께한 시간 동안, 요릭스는 루나에게 점차 이끌렸고, 그녀도 그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밤하늘 아래서 둘이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루나는 요릭스에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웃어 보였다. 서로의 손을 잡고 따스한 밤을 함께하던 그 순간, 요릭스는 이세계가 단순한 모험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궁극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보스, "검은 그림자"가 그들의 여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릭스와 동료들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검은 그림자의 실체와 그가 세상에 끼친 악영향을 알게 된다. 그를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모험의 목표가 되었고, 요릭스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졌다.

끝없는 사막을 건너고, 거대한 산맥을 넘으며, 요릭스 일행은 결국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는 최후의 던전에 도착한다. 던전은 어둡고 음침했으며, 그곳에서 요릭스는 루나와 더욱 결속을 다졌다. 마지막 문을 열었을 때, 그들 앞에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검은 그림자, 이세계의 모든 악의 정점에 선 존재였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마법사 루이스의 마법이 공간을 가르고, 리나의 화살이 그림자의 급소를 노린다. 요릭스는 검을 휘두르며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한 발 한 발 다가서며, 마침내 요릭스는 보스의 심장을 꿰뚫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하던 그 순간, 검은 그림자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

“WaPR{93e9a652d0972f52d330d41f646f0f7c0ef8ea844eb48eb43c3f740ea5c0e1fa}… 이젠 너희의 보상이야.”

그의 말과 함께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며, 그들의 앞에 웅장한 빛이 펼쳐졌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자유'이자, 이세계를 구원할 자격을 얻었다는 증표였다. 모든 고통과 역경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요릭스는 묵직한 감정에 휩싸여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서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행복과 성취감이 넘쳐났다.

모든 전투가 끝나고, 요릭스는 루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따스한 미소와, 이세계에서의 추억이 담긴 눈동자였다. 요릭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세계를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세상의 균열이 서서히 메워지고, 요릭스는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루나와 함께하는 삶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요릭스와 루나는 함께 꿈꿔 온 미래를 걸으며, 이세계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전설로 남아, 또 다른 모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고, 요릭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이세계에서 살아갔다.

